

인사말



김규용 | 본회 회장

자연공원협회를 애호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역사적인 뜻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자연공원협회가 발족된 것은 1971년대로 어연 35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국립공원의 생태조사나 전국공원대회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므로써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업무 실적이나 회원들의 동향을 알리는 협회의 얼굴인 계간지 “자연공원문화”를 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협회 사정으로 계간지 발간이 정지 되었고 정보 교환이 두절된 상태에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계간지 “자연공원문화”를 복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협회를 사랑하는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자연공원협회는 자연공원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체로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주된 사업은 국가의 업무를 위탁, 위임 받아 수행하는 단체라 하겠습니다.

한국자연공원협회는 본회를 두고 전국에 28개의 지회를 설치하여 3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생태 조사연구, 공원 이용객들의 계도·홍보 (전국공원대회 등)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의 혜택 등)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간지 “자연공원문화”를 발간하여 자연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계재 전국 각지 각종에 배포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전국공원대회”를 개최하여 자연공원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자부심과 공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데 한 몫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자연공원협회”는 특수단체임을 감안하여 자연공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